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나눔과 베품의 미학



김학순
경향신문 신문발전연구소장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람 10명 중 4~5명은 평생 단 한번도 기부금을 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탈무드 우화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나를 돕는 길이자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지름길이다. 돈만이 이웃돕기의 수단은 아니다. 시간과 사랑을 쏟는 봉사활동도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있는 나눔과 베품의 미학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한끝 차이

유태인들의 생활규범이자 지혜의 바다로 불리는 탈무드 가운데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런 대목이 있다.

정의로운 한 랍비가 연옥과 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먼저 연옥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엔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렸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런 은식기에다 최고의 음식이 가득 담긴 호화로운 연회테이블에 앉아있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괴로워하는지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의 팔꿈치가 바깥으로 굽어 있었고 팔을 안으로 구부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랍비는 그 후 천국을 방문했다. 거기엔 연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호화로운 연회석이 마련돼 있었다. 팔꿈치가 바깥으로 굽어 있는 것도 연옥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마냥 즐겁게 웃고 있었

다. 천국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옆 사람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천국과 연옥의 차이는 옆 사람에게 먹여 줄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있는 우화가 아닐 수 없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불우한 이웃돕기 활동마저 부진하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가슴에 새겨 봄직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구세군 자선냄비에 3천7백50여 만원을 쾌척한 뒤 유유히 사라진 멋진 50대 신사는 차디찬 겨울의 한기를 녹여준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은 신이 아닌 인간의 경지에서는 쉽지 않은 실천덕목이다. 죽은 어머니와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 외톨이 중

학생을 돕는 손길이 줄을 잇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살아 있음을 방증한다. 먹는 것과 입는 옷까지 아껴가며 억척스레 모은 전재산을 남김없이 기부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할머니들의 넓디넓은 선행이 잊힐만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역시 나눔의 전범(典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부문화와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너무나 열악한 기부문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 1인당 기부액은 미국이 1백29만원이라면 한국은 9만6천원에 불과하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미국의 기부문화와 자선활동은 반미의식이 높아지는 한국사회라고 해서 결코 침을 뱉을 수 없는 모델이다.

우리 사회를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이성보다 감성이 강해 보이는 우리 국민은 이웃돕기와 기부에도 매우 흡사한 경향을 드러내곤 한다. 불쌍한 이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방송사가 벌이는 ARS 캠페인에서 1천원짜리 전화가 빗발같이 날아들어 1억 원 정도는 순식간에 모금되는 게 우리 사회의 우아한 단면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눈물 짜는 앵벌이 기사가 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성금이 답지한다. 더없이 상쾌한 일이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우 이웃들의 사정에는 쉽사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 뿐 아니라 명사들이 참가해 화려한 행사를 벌이는 유명 시민단체에는 기부금이 밀물처럼 몰려든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단체는 사정이 열악하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도 그리 다르지 않다. 일

류대학이나 국립대학에 집중되기 심상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이나 일류가 아닌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교육조차 강자의 논리에 지배되는 듯한 비애를 맛본다고 하소연한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데도 현실은 정반대다.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동전 200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서에 붙들려간 20대 청년의 슬픈 사연은 우리 사회의 이웃돕기 방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날씨는 추워지고 유치장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어 차라리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돈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청년의 고백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다. 이 청년은 이보다 앞서 몇 만원을 훔치는 바람에 경찰에 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오는 불운 아닌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온정의 손길이 미쳤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다.

흔히 지적되는 일이지만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남을 돕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도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검사항 가운데 하나다. 자선가들에게 때로 달려들어 또 다른 기부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꼴볼견도 때로는 이웃사랑의 적대세력이 될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4~5명은 평생 동안 단 한번도 기부금을 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탈무드의 우화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나를 돕는 길이자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의 지름길이다. 돈만이 이웃돕기의 수단은 아니다. 시간과 사랑을 쏟는 봉사활동도 그지없는 자선이다.